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38

우상을 부수어버린 기드온

(사사기 6:1~32)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용감한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해줄거예요.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괴상하게 생긴
다른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큰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셔서
약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죠.

**“필필필! 사랑하는 미디안 민족이여!
이스라엘이 수확한 농작물들, 이스라엘이 기른 가축들
모두 우리 것입니다! 마음껏들 챙기십시오! 필필필!”**

미디안 사람들은 정말 강했고, 포악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곡식 한 알, 양 한 마리 남겨놓질 않았죠.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말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집을 버리고
동굴에 숨어 사는 사람들도까지 생겨났어요.

**‘기드온’은 바로 이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도 처음에는 평범한 시민 중 한 명일 뿐이었죠.**

“영차! 영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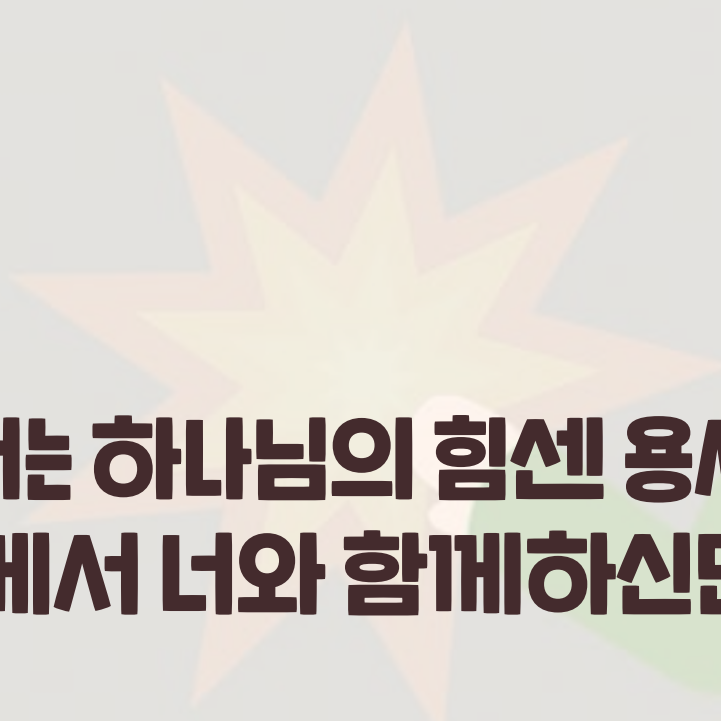
**“어이, 기드온! 그건, 포도주 만들 때 쓰는 포도주 틀 아닌가?
요즘 같은 시대에 갑자기 왜 포도주를 안들고 있어?”**

**“모르는 소리 말게. 난 지금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올해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고 있다구.”**



**“대놓고 곡식을 타작하고 있으면
보나 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배배앗아 갈 텐데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면 힘들긴 해도
적들이 모를 것 아닌가? 내 나름대로 머리 좀 써봤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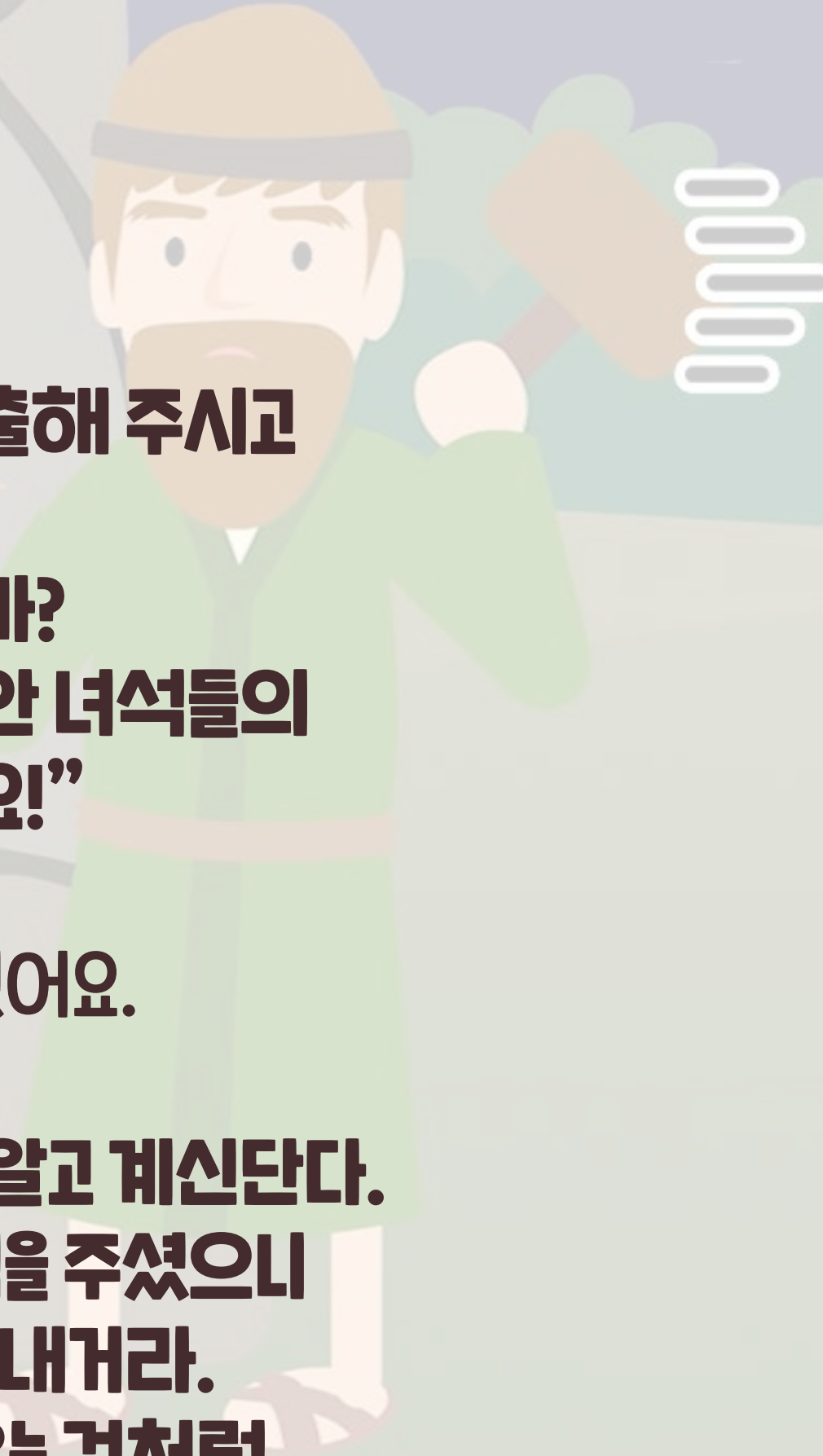
이렇게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고 겁이 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드온이 사는 집 상수리나무 아래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드온, 너는 하나님의 힘센 용사란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단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콧방귀를 꾸며 말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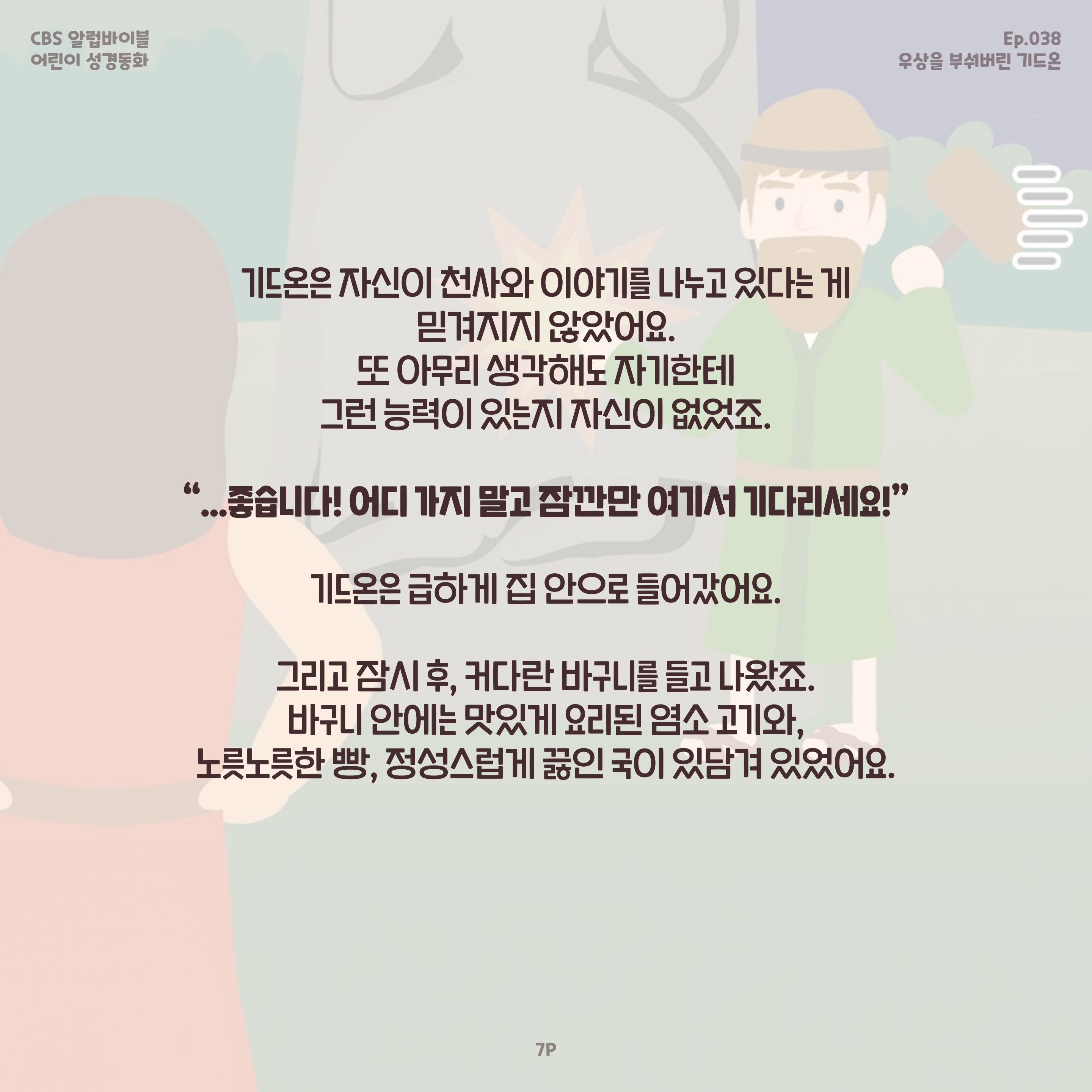
**“힘센 용사요? 하, 무슨 그런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십니까?
저희 집안은요 힘없고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집 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요?
예예, 저도 조상님들한테 듣기야 많이 들었죠.”**



**“그분이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고
수차례 도와주셨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 녀석들의
지배를 당하는 꼴 아니냐고요!”**

그러자 천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에게 큰 능력을 주셨으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해내거라.
이제 너는 마치 단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손쉽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단다.”**



기드온은 자신이 천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자신이 없었죠.

“... 좋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기드온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나왔죠.
바구니 안에는 맛있게 요리된 염소 고기와,
노릇노릇한 빵, 정성스럽게 끓인 국이 있담겨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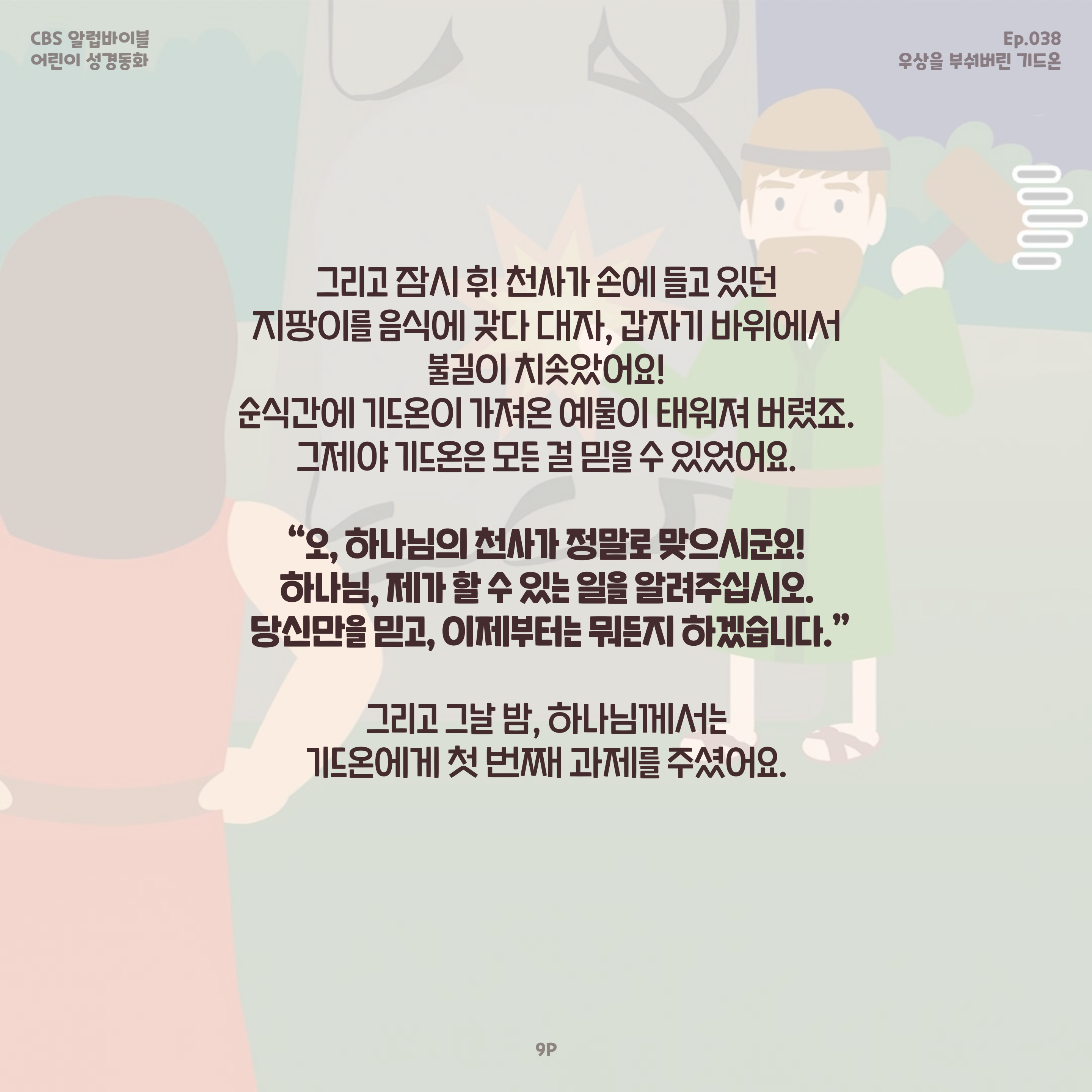


**“자, 제가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거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천사가 말했어요.

**“네가 가져온 고기와 빵을 저기 바위 위에 올려놓거라.
그리고 그 위에, 네가 만들어온 국을 부어 보거라.”**

기드온은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천사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음식에 갖다 대자, 갑자기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순식간에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이 태워져 버렸죠.
그제야 기드온은 모든 걸 믿을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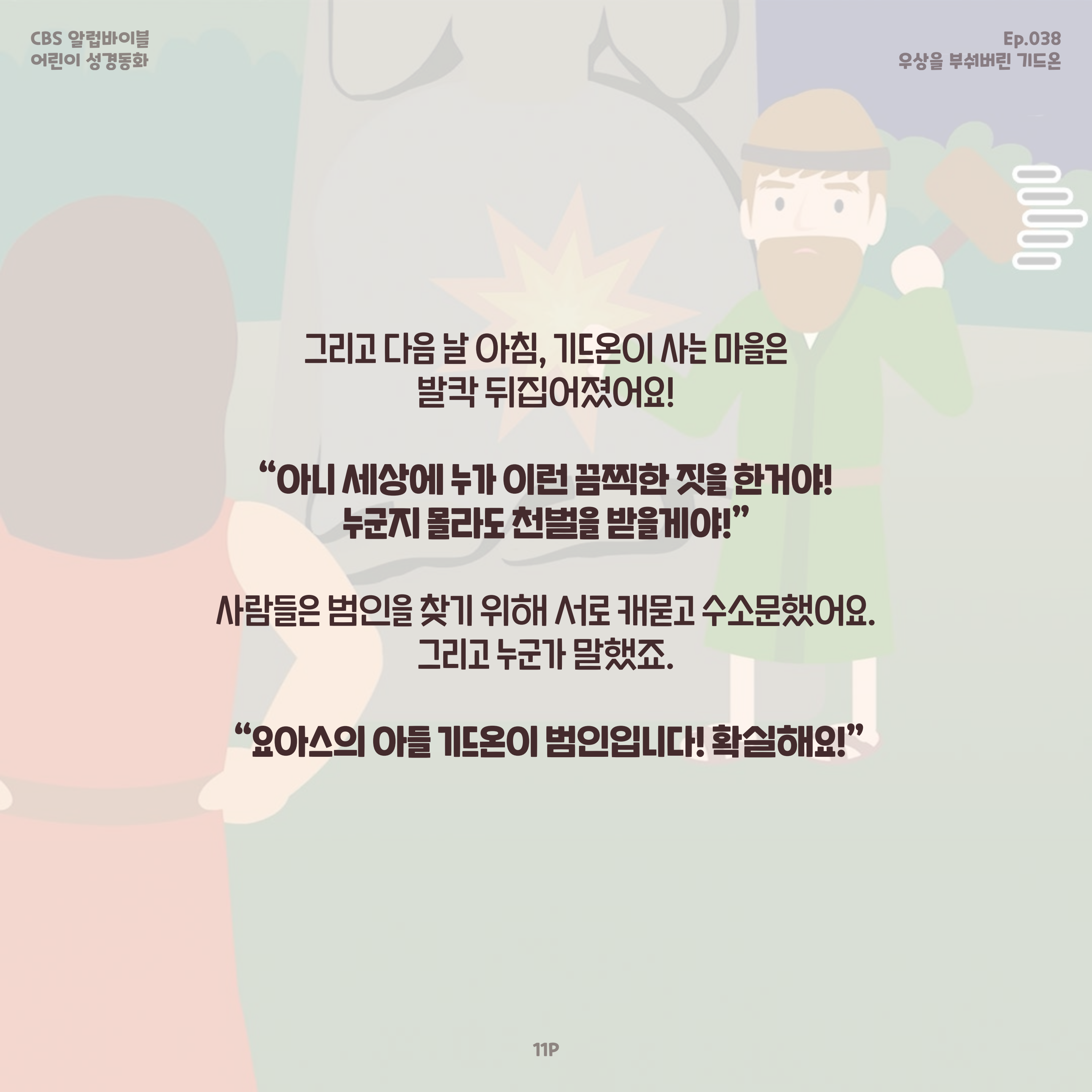
**“오,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로 맞으시군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십시오.
당신만을 믿고, 이제부터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과제를 주셨어요.**

바로, 우상을 부숴버리는 거였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심지어 작은 숲속에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어요.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제단을 헐어버리는 거였죠.**

**그날 기드온은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드온이 사는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한거야!
누군지 몰라도 천벌을 받을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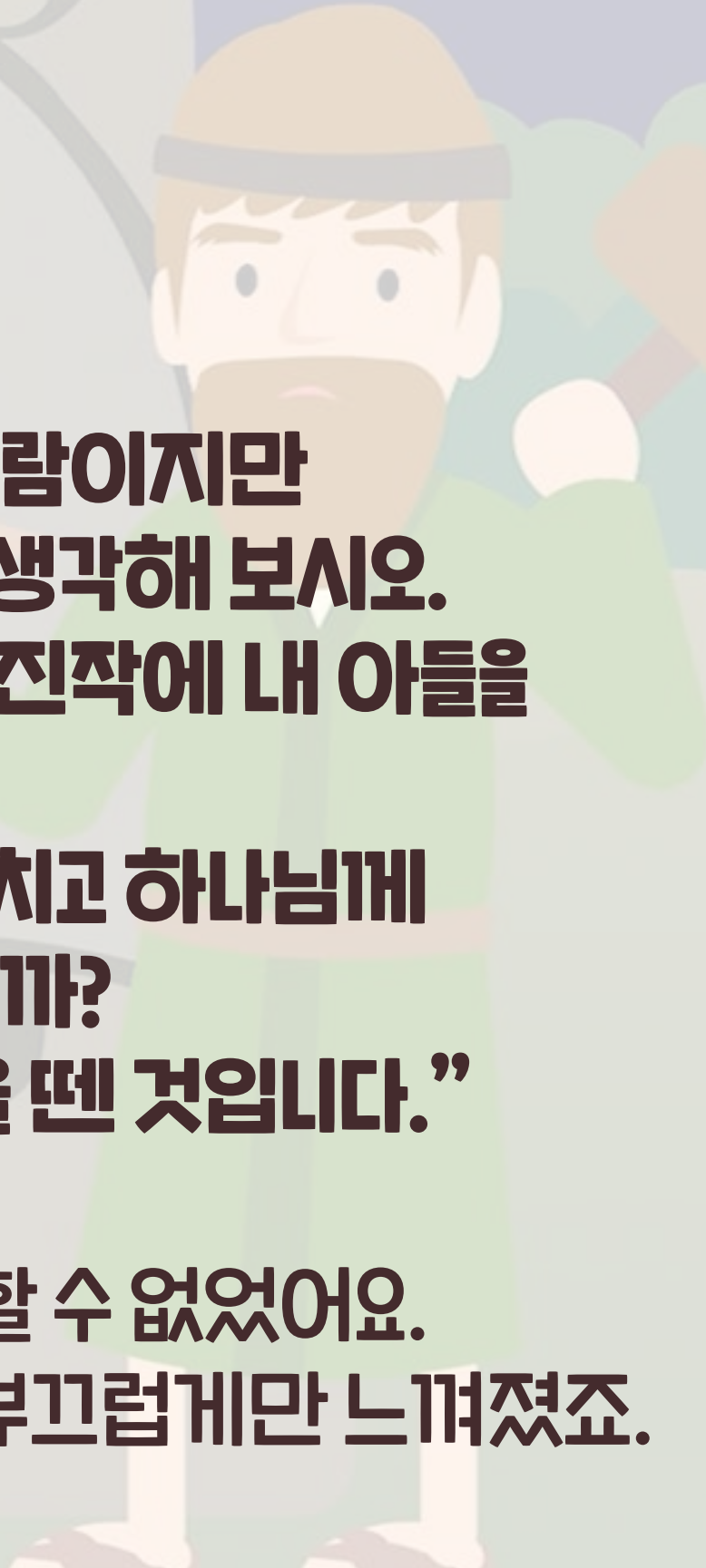
**사람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서로 캐묻고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말했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범인입니다! 확실해요!”

화가 난 사람들이 당장 요아스를 찾아갔어요.

**“당신 아들이 엄청난 짓을 저질렀소!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단 말이오!
우리의 신들을 그리 만들었으니 당신의 아들도 똑같이 해줘야겠소!”**

갑작스런 상황에, 요아스도 당황스럽고 난감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들 기드온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사람들을 설득했죠.



**“여러분, 나도 바알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건 우리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소. 생각해 보시오.
정말 바알 신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진작에 내 아들을
벌하지 않았겠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기드온이 어젯 밤 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요아스의 말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우상을 섬겨왔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죠.

마침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에 맞설 용기가 생긴 거예요.